

포시에스 전자문서 솔루션 ‘오즈이폼’ 통신 3사 모두 쓴다

SKT·LG유플러스 이어 KT 공급
종이서류 작성·서명 절차 간소화
신속한 업무 처리로 고객 만족도 ↑

금융권 창구 페이퍼리스도 주도



포시에스의 전자문서 솔루션 ‘오즈이폼(OZ e-Form)’

전자문서 솔루션 전문업체 포시에스가 KT에 전자문서 솔루션 ‘오즈이폼’(OZ e-Form)을 공급했다. 국내 통신 3사 어느 대리점을 방문하든 오즈이폼으로 서비스 신청 및 계약을 할 수 있게 됐다.

포시에스(대표 박미경·문진일)는 SK텔레콤, LG유플러스에 이어 최근 KT에 전자문서 솔루션 오즈이폼을 공급하며 금융권에서 강제 행진을 통신 분야에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고 21일 밝혔다.

전자문서 기반 서비스 계약은 기존 종이서류 작성과 서명 절차를 간소화한다. 가입신청 시간 단축은 물론 고객 편의성과 직원 업무 향상을 이끌어내 고객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다.

포시에스는 간편서식과 동적서식,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서명영역 자동 확대·필압·확-

시간체크 등이 가능해 고객사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오즈이폼은 HTML5를 지원, 운용체계(OS)나 브라우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작성한 모든 전자문서는 인터넷만 연결되면 웹브라우저나 기기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다. 이폼을 도입한 기업에서는 OS별로 서식을 따로 개발할 필요가 없어 서식 개발기간을 줄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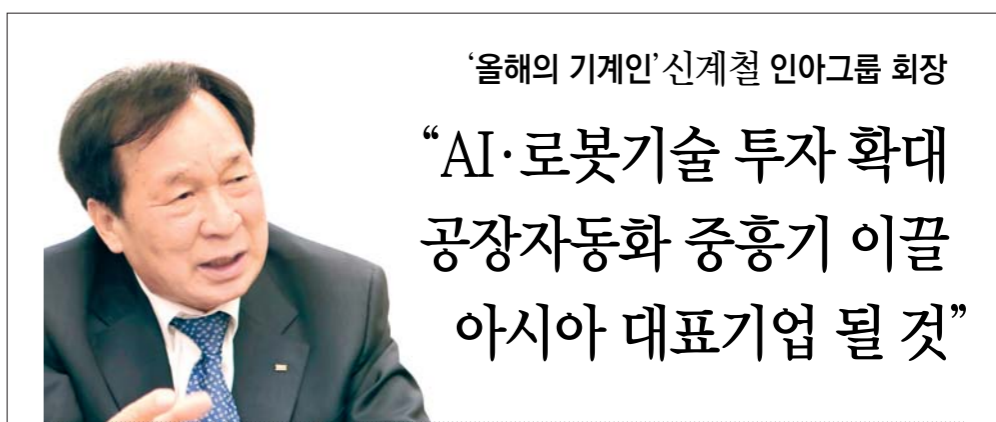
문서 입력이나 서명 때도 마찬가지로, 사용자와 고객 모두 애플리케이션이나 전용 뷰어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애플 iOS와 구글 안드로이드 등 모바일 환경도 완벽 지원한다.

SK텔레콤은 2017년 상반기 서식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전국 대리점에서 사용하고 있다. 신속한 업무 처리와 고객 편의성을 증대시켜 고객 만족도와 서비스 품질을 크게 향상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LG유플러스도 실시간 처리가 가능한 XML 기반 오즈이폼으로 가입신청 시스템을 구축해 전국 직영대리점에 확대 적용했다. 내부 업무 개선 효과와 함께 고객서비스 품질 향상 측면에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 최근 KT 가입신청 시스템까지 구축 완료, 포시에스는 국내 대표 통신 3사에 오즈이폼을 적용했다.

포시에스는 최근 금융권 창구 페이퍼리스 시스템과 태블릿브랜치 시스템 구축까지 주도권을 잡으며 활발한 사업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NH투자증권, KB증권,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삼성화재, 한화손해보험, 신한생명, 롯데카드 등 금융권에서 오즈이폼을 공급했다.

문진일 포시에스 대표는 “고객 요구사항이 다양해지고 스마트해져 차별화된 기술과 고객 서비스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라면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발 앞서 생각하고 최적 솔루션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올해의 기계인’ 신계철 인아그룹 회장

“AI·로봇기술 투자 확대
공장자동화 중흥기 이끌
아시아 대표기업 될 것”

“40주년을 앞둔 인아그룹은 해외 유수의 자동화 장비를 국내에 공급하고 부가가치가 큰 핵심장비를 국산화했습니다. 파트너사와 돈독한 신뢰를 구축했기에 가능한 성과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AI)·로봇기술 투자를 확대해 공장자동화산업 중흥기를 이끄는 아시아 대표기업이 될 것입니다.”

신계철 인아그룹 회장이 ‘2018 기계의 날’ 기념식에서 50년간 공장자동화 산업을 이끌며 국내 기계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의 기계인’상을 수상했다. 신계철 회장을 만나 국내 1세대 기계인으로 개척해온 공장자동화 반세기 역사와 4차 산업혁명 시대 성장전략을 들었다.

▲창업에 이르기까지 어떤 경험을 했다. -한양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컨베이어 회사에서 공장자동화 설계를 시작했다. 반도체에 스카우트된 후 설계엔지니어로 출발해 영업부장까지 했다. 1974년 다이후쿠 일본 본사에서 컨베이어 교육을 받고 현대자동차 포니 12만대 라인 11억원 규모 컨베이어 사업을 수행했다. 삼성전자·금성사(현 LG전자) 냉장고, 컬러TV 라인 등 컨베이어 자동화라인을 구축했다. 국내 제조공장 컨베이어는 거의 전담했다.

반도체 컨베이어 사업부에서 설계·생산·영업과 함께 구매조달 분야에도 눈을 떴다. 국내에 자동화부품 수입업체가 없다는 점에 주목하고 1979년 인아기계시스템을 설립했다. ▲유통 사업이라는 한계는 어떻게 극복했다. -공급처와 신뢰가 쌓이다보니 일본 주요 자동화부품업체가 총판을 제안했다. 오리엔탈모터, 사카이 변속기, 마키시코 감속기, 니세이 기어 모터 등을 거래했다. 공장자동화 기술과 공급처를 확보했지만 국내에 시장 자체가 없었다. 전국 공장을 직접 찾다니며 도면을 보여주고 컨베이어 장점을 설명해줬다. 그 결과 컨베이어, 부품, 체인 등 누구나 쓸 수 있는 자동화설비를 제공했다.

일본 오리엔탈모터와 1990년 인아오리엔탈모터로 합작하며 한 단계 도약했다. 인아그룹 지분이 59% 오리엔탈모터가 41%다. 세계 16개국에 퍼진 오리엔탈모터 현지법인 중 한국만 합작법인이다. 일본에서 전

례가 없는 일로 인아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불가능했다.

▲합작법인을 넘어 세계 최고기술을 국산화한 점이 인상적이다.

1992년 ‘알루미늄 프로파일’ 국산화에 성공했다. 1986년 유럽 전시장에서 독일 아이템(ITEM)의 알루미늄 프로파일을 독점 수입해 국내 판매를 시작했다. 녹도 생가지 않고 쉽게 조립할 수 있어 활용도가 매우 높았다. 연구·개발 끝에 1992년 국산화에 성공했다. 수입제품 20%에 불과한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1990년대 국내 다양한 생산라인에 공급했다. 일본에 없던 방식으로 수입만하다가 역으로 일본시장에 수출했다.

2004년 삼성 탕정 LCD 물류라인을 수주했고 2013년 ‘연성인쇄회로기판(FPCB)’과 ‘반도체 패널레벨패키지(PLP)용 레이저 장비’ 국산화에 성공했다. 미국 에어로텍의 모션 컨트롤러 레이저 가공 제어기와 모션 제어기를 국내 실정에 맞게 설계·제작·공급했다. 작년 6월 에어로텍과 합작한 애니모션텍이 아시아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내년 창립 40주년을 앞두고 있다. 인아그룹 100년 존속을 위한 전략이 있다면.

-인아그룹은 자동화 설비를 수입해 공급하고 시장 환경에 맞는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 수요를 창출했다. 제조장비 중 부가가치가 큰 핵심 유닛을 만들고 파트너사와 신뢰 구축에 최선을 다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공장자동화산업이 중흥기를 이끌 것이다. 현재 인아엔지니어는 변화된 고객요구에 최적화된 모션 제어기술과 AI·스마트팩토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인아텍 자율주행로봇은 레이저 센서로 360도 커버해 후진이 불가능한 경쟁사보다 뛰어난 품질을 보장한다. 로봇 공급과 함께 소프트웨어도 설치하고 공장내 통신과도 연결한다. 국내 공장 로봇 수요가 충분해지면 본격적으로 국산화에 들어갈 것이다.

인아그룹의 ‘인’은 체 고항영인, ‘아’는 아시아·옴을 뜻한다. 합작법인인 인아오리엔탈모터, 애니모션텍 2개사와 인아텍, 인아코포, 인아엔씨까지 총 5개 계열사가 시너지를 내 아시아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공장자동화 전문기업이 될 것이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비온드솔루션, 경찰청에 PC 1만7000대 공급

사무용 PC구매사업 수주...계약 체결
메모리 증설·OS 업데이트도 실시

망분리 정보보안 전문기업 비온드솔루션이 경찰청에 1만7000여대 PC를 공급한다.

비온드솔루션(대표 김승현)은 경찰청 ‘2018년 사무용 PC 구매사업’을 수주하고 구축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비온드솔루션은 경찰청 본청을 비롯한 11개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 1만7000여대 PC를 공급한다. 노후화된 1만여대 PC 메모리 증설 및 OS 업데이트 등 대규모 프로젝트도 실시한다. 경찰청 PC교체 사업은 표류 끝에 비온드솔

루션을 최종 공급업체로 선정했다. 지난 7월 경찰청 ‘2018년 사무용 PC 구매사업’을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 공고했다. 그러나 핵심 부품 중앙처리장치(CPU) 공급 부족 사태 장기화로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해 세 차례나 유찰됐다. CPU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가격상승으로 경찰청이 제시한 입찰가를 맞추지 못해 중소PC 제조사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지난달 일반경쟁으로 입찰공고를 변경해 삼성과 LG 등 대기업은 물론 HP, 델 등 외산업체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넓혔다. 공공기관 PC 사업은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으로 중소기업만 조달에 참여해야 하지만 이례적으로 일반경쟁으로 변경됐다.

비온드솔루션은 CPU 공급 부족 사태에서도 최종 입찰에서 삼성전자를 누르고 최종 낙찰업체로 계약을 체결했다. 최종입찰에서 삼성전자는 152억원, 비온드솔루션은 136억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온드솔루션은 처음부터 끝까지 수주할 수 있다는 전략을 일관적으로 진행하면서 안정적 부품 공급을 확보하는 동시에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사업을 수주했다고 설명했다.

김승현 비온드솔루션 대표는 “이번 경찰청 PC 사업 수주를 통해 의미있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면서 “경찰청 PC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베스트텍시스템, 한국미니스톱과 점포시스템 유지보수 계약

2020년 2월까지 16개월간 서비스

빅데이터·클라우드 플랫폼 기업 베스트텍시스템이 편의점 업계 4위인 한국미니스톱과 점포시스템 유지 보수 계약을 체결, 주목된다. 롯데·신세계·글랜드 프라이빗에쿼티 등이 한국미니스톱 인수전에 뛰어든 상황에서 이번 계약이 건이 나비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베스트텍시스템(대표 서우승)은 한국미니스톱과 점포시스템을 구성하는 HW·SW 등에 대한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베스트텍시스템은 이달부터 2020년 2월까지 16개월 동안 한국미니스톱 서버·스토리지 인프라와 OS·상용SW 라이선스 등 점포시스템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니스톱은 지난해 매출 1조 1852억원에 점포수는 2535개이다. 회사는 이번 계약을 계기로 한국미니스톱 인수전이 마무리 되면 리테일 시장에서 향후 인스그룹인 신세계 또는 롯데 등과 어떠한 형태든 비즈니스 관계를 형성할 것으로 보여진다. 10월말 기준으로 롯데는 세븐일레븐 점포 9548개, 신세계는 이마트24 점포 3564개를 운영하고 있다.

서우승 대표는 “빅데이터 기술 기반의 플

우 패킷 데이터 머신러닝 분석 기술을 도입해 발생 가능한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해 월 단위 정기점검·장애 대응·이력 관리 등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 대표는 이어 “베스트텍시스템은 리테일 뿐만 아니라 공공·금융·기업 등 다양한 계층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베스트텍시스템은 네트워kst오리지(NA S)·올플래시 스토리지 한국 총판 역할을 하고 있다. 약 10여 년 이상 축적한 HW·SW 노하우를 기반으로 빅데이터·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인수민기자 smahn@etnews.com



씨엔티테크 ‘전화성의 어드벤처 11·12기’ 통합 데모데이 수상자가 소개되고 있다.

‘전화성의 어드벤처 11·12기’ 통합 데모데이 성료

씨엔티테크, 12개 스타트업 사업 발표

씨엔티테크(대표 전화성)는 지난 19일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전화성의 어드벤처 11·12기 통합 데모데이’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전했다.

서울시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최하고 씨엔티테크가 주관한 이번 데모데이는 12개 스타트업 사업 발표가 진행됐다.

대상은 불가사리 추출성분을 이용한 친환경 제설제를 개발한 ‘스타스테크’에 돌아갔다. 스타스테크는 올해 1월 제품 양산을 시작으로 10 곳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필드 테스트를 완료

했다. 최우수상은 마트 자동화·무인화 플랫폼 ‘맘마먹자’ 앱을 개발한 ‘더맘마’가 수상했다. 맘마먹자는 중소형 마트와 상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편리한 주문·배달관리, 전담세일행사, 광고발송, 할인쿠폰 지급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우수상은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신진 아티스트 음원 발굴 및 마케팅 공유경제 솔루션 ‘어나니머스 아티스트’를 론칭한 나비비가 차지했다. 어나니머스 아티스트는 아직 대중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실력있는 아티스트가 하나의 이름을 공유하여 음원을 발매하는 서비스다. 권상희기자

aT 정보보안지수 관리시스템 구축 이볼케이노, 시큐어워크시스템 공급

이볼케이노(대표 황재운)는 조달청에서 발주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정보보안지수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정보보안리딩 솔루션 ‘시큐어워크시스템(SWS)’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aT가 현재 운영 중인 내부평가 항목 정보보안지표를 임직원들이 제대로 지키는 여부를 점검하고 감사 자료로 활용하는 등 보안지수 관리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시큐어워크시스템은 aT 내부 임직원을 대상으로 차·실별, 개인별 정보보호 업무 관리가 가능하도록 구현한다.

산재한 각종 보안 관련 문서·매뉴얼 중앙 관리·현행 수기로 관리하는 보안 점검 확인 및 보안 교육 이수 등을 데이터로 축적해 가시성을 확보한다.

이볼케이노는 약 3개월간 정보보안지수 관리 시스템을 설치한다.

이볼케이노 관계자는 “기존 공공기관 등에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정보보안지수 관리 지표 구축 등 보안 정책을 반영한 관리 업무 편의성을 제공한다”면서 “향후 다 기관 정보보안지수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에 진출하는 발판으로 삼는다”고 말했다. 인수민기자

아드반테스트, 미아스트로 시스템 테스트 사업 인수

일본 반도체 테스트장비 공급업체 아드반테스트(대표 요시다 요시아키)가 미국 아스트로닉스로부터 반도체·모듈 부문 시스템 레벨 테스트사업을 1억8500만달러(약 2000억원)에 인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아드반테스트는 특장성과 기준 최대 3000만 달러(약 340억원) 적립식 지급을 추가 제공하는 최종계약도 체결했다.

아드반테스트는 이번 인수합병을 계기로 기존 첨단 자동화테스트장비(ATE) 솔루션을 보완하고 대형 가전제품 제조업체에 지속적으로 중요시되는 시스템 레벨 테스트 부문에서 입지를 넓혔다. 이번 인수합병은 지난 4월 발표한

아드반테스트 중장기계획의 핵심인 테스트·검사 솔루션을 확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요시다 아드반테스트 대표는 “테스트 시스템으로 고객기반·리소스를 확보해 아드반테스트 세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고객·직원·주주에게 중요가치를 제공해 새로운 솔루션 개발에 상당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합병을 통해 테스트·검사 제품군이 확대돼 다양한 고객에게 탄탄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반도체 밸류 체인을 계속 진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준희기자

콘도/골프 회원권 매도/매수/교환 급매각!

SHINHAN MEMBERSHIP 신한피원권주식회사			
콘도명	시세(만원)	골프장명	시세(만원)
대명 리조트(회원제/무)	2,050	태광(개)	7,000
대명 스위트(회원제/기명)	3,600	크리스탈밸리 무기명(분양)	20,000
아난티 레지던스(회원제/기명)	4,600	제일	14,000
한화 38(등기/기명)	1,380	비에이비스타(주중/무)	23,000
엘리힐리 17(회원제/기)	1,300	오크밸리	27,700

▶ 지정거래: 우리 1005303439878 ▶ 예금주: 신한회원권주식회사
*당도착금 지급회계포함(보증금 제외) *매도/매수/교환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신원조사
*연한 계약 시 고에 대해서는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상담문의 02) 6239 8800**